

해남에 알로사우루스가 깨어났다

해남공룡박물관 실감영상 전시
진품 공룡화석과 동시 관람 가능
공룡시대 실감 콘텐츠 색다른 감동



해남공룡박물관에 설치된 알로사우루스 영상물. <해남군 제공>

“해남에 알로사우루스가 깨어났다.”
해남군은 해남공룡박물관에서 쥐라기 육식공룡의 간판스타 알로사우루스 공룡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디지털 영상전시 시설이 설치됐다고 5일 밝혔다.

박물관 지하 1층 시대별 공룡실에 구축한 디지털 전시 공간은 알로사우루스 화석 진열장 옆에 설치돼 화석과 영상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다.

특히 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알로사우루스 화석은 국내 유일한 진품 골격 화석으로, 전시실 내 공룡 화석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전시물로 꼽히고 있다.

가로 5m, 높이 10m 크기의 LED 스크린은 호남 권역의 박물관에서는 최대 규모로, 편당 5분 내외의 몰입도 있는 디지털 영상 3편을 상영해 관람객들이 알로사우루스가 살았던 공룡시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시된 진품 화석 바로 앞에서 되살아나는 알로사우루스를 만날 수 있으며, 스테고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등 초식공룡과 벌었던 치열한 생존

경쟁과 자연의 변화 등 실감이 나는 스토리텔링 색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다.

해남공룡박물관은 국가자연유산과 국가중요과학기술포함 시설로 동시에 보유한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국내 최대 규모 공룡박물관이다.

그동안 화석을 관람하는 방식을 넘어 다양한 디지털 체험·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에도 주력해 왔다.

올해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 ‘체험형

관광 융복합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알로사우루스 화석을 활용한 디지털 전시 공간을 구축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공룡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를 관람객에게 선보일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콘텐츠 도입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선진 박물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암군 제작 생성형 AI 애니메이션 ‘화제’

지역 구전설화 작품 ‘금마왕자와 월출산 낭자’ 유튜브 공개

영암군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애니메이션이 화제다.

공개된 작품은 ‘금마왕자와 월출산 낭자’ (포스터)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 ‘문화산업육성지원 공모사업’의 생성형 AI 기술 기반 온라인 콘텐츠 개발의 결과물이다.

애니메이션은 영암군 구전 설화인 ‘금마왕자’를 모티브로 제작진의 해석을 가미해 제작됐다.

작품 속 다채로운 이미지·동영상부터 분위기 있는 배경 음악과 캐릭터의 대사·음성까지 생성형 AI로 만들어졌다.

적용된 인공지능 기술은 아름다운 영암의 모습을 잘 담아내고, 배경음악도 다양한 분위기를 살려 몰입감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에서 생성형 AI 기술로 노래나 짧은 영상을 제작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러닝 타임 17



분에 이르는 애니메이션 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병준 영암군 홍보과장은 “이번 작품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숨은 이야기가 신선하다’, ‘AI로 만든 애니메이션이 신기하다’는 등의 반응이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등 화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신안군 고령자 보행 안전 위해 290개 마을 안길 정비

2019년부터 연차 사업 추진

신안군이 고령자의 이동 안전과 편의를 위한 마을 안길 정비 사업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39% 이상을 차지하는 신안군은 2018년부터 노후되고 파손된 마을안길 정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 수요 조사를 거쳐 290개 마을, 250km 구간을 2019년부터 착수해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로 콘크리트로 형성돼 파손된 부위에 걸려 넘어지거나 보행보조차의 이동이 어려운 안길을

아스콘으로 덧씌워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정비사업은 지금까지 6년 동안 총 183억원이 투입됐으며 150개 마을길 162km를 정비했다.

신안군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은 단순 도로 정비를 떠나 넘어져 골절되면 쉽게 치료되지 않는 고령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며 잦은 요철로 인한 이동불편과 소음 등에 의한 주민 피해를 해소하고자 장기적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사업은 고령의 주민들이 빈번히 이동하는 곳을 우선순위로 선정했으며 차순위로 경사가 급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집중된 곳을 정비 대상지로

선정했다.

사업 취지의 시너지를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연계해 마을에 색을 더하고 마을방송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사업을 같이 시행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고령이라는 이름 속에 계신 지역의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신안군을 일으켜 세우고 지켜주신 소중한 분들로, 우리가 돌봐드려야 할 중요한 대상이다”라며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마을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마을을 만들도록 지속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무안군가족센터·공동육아·돌봄센터 개소

복합문화센터에 동시에 문 열어

무안군은 최근 복합문화센터에 가족복지의 중심 역할을 될 무안군가족센터·공동육아나눔터·다함께 돌봄센터가 동시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무안군가족센터는 무안읍 무안로에 있던 기존 시설을 이전해 1·2층에 위치하며 1층 교류소통공간, 교육장, 요리교육장과 2층 가족센터 사무실, 면접·집단·전화상담실이 있다. 가족행태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무안군에 처음으로 생긴 공동육아나눔터는 1층에 위치하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무안군가족센터에서 운영하여 육아정보 공유와 돌봄포함이 서

비스를 담당한다.

5층에 위치한 다함께 돌봄센터는 4호점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공백 해소로 맞벌이부부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군 복합문화센터에 가족관련 3개 기관이 함께 개소해 육아·돌봄 공백을 한 곳에서 해소하고 가족 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군 복합문화센터에 입주하여 개소하게 되는 시설들이 무안군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행복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가족복지의 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목포 어울림장난감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목포시 어울림장난감도서관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선호도를 반영한 인기·신규 장난감을 구입해 대여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장난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장난감 선호도 조사는 목포어울림장난감도서관 방문 설문지 작성 및 누리집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목포시 어울림장난감도서관은 1400여점의 다양한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주 둘째, 넷째

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월·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다양한 장난감 구매·대여로 영유아의 복지 증진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아이 키우기 좋은 목포시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영광군 치매안심마을 ‘청춘사진관’ 프로그램.

영광군 거주지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호평

경로당 4곳 정신건강 교육 등 진행

“특별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해 준 보건소에 감사해요.”

영광군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거주지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는 치매 친화 환경 조성 프로그램이 참여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영광군은 지난 9월23일부터 11월27일까지 주민과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한 ‘치매 안심마을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의 ‘치매 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돼 영광읍 남일, 불갑면 오룡·맹자, 군남면 장교마을 경로당 4곳에서 각 8회씩 진행했다. 치매 예방 교실, 노인 영양·정신

건강 교육, 작은 정원 만들기, 청춘사진관 운영, 노래교실, 터링교실, 공예 교실 등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 중 옛 교복을 입은 멋진 사진을 액자에 넣어 선물한 ‘청춘사진관’은 어르신들이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젊은 시절을 추억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옛 교복을 입어보니 젊은 시절로 돌아가 학교에 가는 것처럼 다시 마음이 설레고 행복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 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